

구 다카하시 창고

다카하시 창고는 도매용 상품을 보관하기 위해 1923년에 지어졌습니다. 이 창고는 1989년에 개수되었으며, 2016년에는 스테인드글라스 미술관으로 문을 열어 영국 등 유럽의 교회에서 사용된 것을 복원한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고향인 니가타에서 오타루에 왔을 때 다카하시 나오지(1856년~1926년)는 18세였습니다. 다카하시 나오지는 3년간 견어물 가게의 직원으로 일했으며, 그곳에서 장사를 배운 후 독립했습니다. 그는 된장과 간장의 양조를 시작하여 1899년에 동생과 함께 쌀, 된장, 간장, 해산물 등의 상품을 거래하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다카하시 가문은 20세기 초에 홋카이도의 팔에 주목하여 대량으로 저렴하게 사들여 가격이 오를 때까지 저장했다가 판매함으로써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1914년에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으로 루마니아와 헝가리 등 유럽의 주요 생산국에서 콩류 수출에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다카하시 가문을 비롯한 오타루 상인들은 이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다카하시 나오지는 한 시즌 동안 수확되는 홋카이도의 팔 대부분을 사들였고, 일본의 대형 해운 회사 중 하나인 일본 우선(NYK LINE)과 협상한 후 런던의 무역 회사에 직접 출하했습니다. 다카하시 나오지는 훗날 정계에 진출했을 때 '아즈키 쇼군(팔 장군)'으로 유명해졌는데, 본인이 직접 이 이름을 생각해 냈다고 합니다.